

## 수시모집 2차 논술고사 (인문계열)

### ■ 일반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20분, 배점은 [문항 1]이 70점, [문항 2]가 30점입니다.
2. 각 문항의 답안은 반드시 해당 답안 공간에 작성하시오.
3. 답안을 구상할 때 문제지의 여백이나 문제지 내의 연습장을 사용하시오.
4. 답안을 작성할 때 반드시 흑색 필기구만 사용하시오(연필, 샤프 사용 가능, 사인펜 불가).
5. 답안을 정정할 때 원고지 사용법에 따르시오(수정액, 수정 테이프, 지우개 사용 가능).

※ 답안지는 절대 교체할 수 없습니다.

### ■ 답안 작성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마시오.
2. 제시된 분량을 지키시오.
3.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마시오.
4. 논술문의 형식에서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만 쓰시오.
5. 수험번호, 성명 등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 공간이나 답안지의 여백에 드러내지 마시오.

# 수시모집 2차 논술고사 (인문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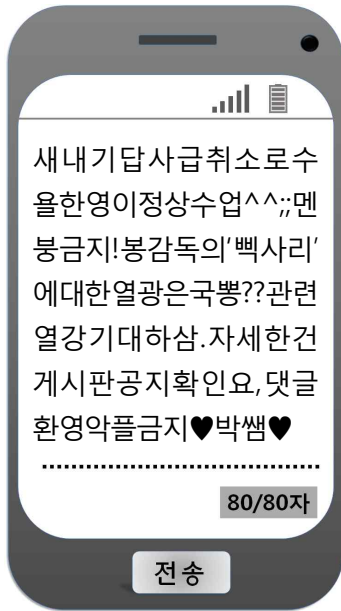
## ■ 문항 1 [70점]

[문항 1 - 가] (가)를 요약하라. (300±50자, 20점)

[문항 1 - 나] <다음>의 그림 속 언어 사용 사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한쪽을 선택하여 <조건>에 맞게 논술하라. (800±80자, 50점)

### < 다음 >

<한국 영화의 이해>란 교양과목을 맡고 있는 박인하 교수는 예고된 휴강을 취소하고 강의를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수강생들에게 보내려고 한다.



[풀이] 신입생 답사가 갑자기 취소되어 수요일 <한국 영화의 이해>는 정상수업 합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당황하지 말기 바랍니다. 봉준호 감독의 '백사리'에 열광하는 것은 우리 영화에 대한 국수주의의 표출일 까요? 이 주제에 대한 흥미로운 수업 기대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의 공지를 확인하세요. 댓글은 환영하나 악의적인 글은 쓰지 마세요.  
- 여러분을 사랑하는 박인하 선생

- 멘봉: 멘탈(mental)+봉괴. 몹시 당황하여 정신이 없다는 뜻.
- 백사리: 영화의 사실성을 높인 등장인물의 실수가 의도된 것인가에 대한 프랑스 기자의 질문에 “그거 그냥 백사리데요.”란 봉준호 감독의 대답 이후 ‘piksari’라 표기되며, 영화기법에 관한 전문용어로 쓰이기 시작함.
- 국뽕: 국(國)+뽕. 자국에 대한 과도한 자부심을 비꼬는 말.
- 댓글: 리플(reply, 인터넷 글에 대해 짧게 답한 글).
- 악플: 악의적인 리플(reply).

### < 조건 >

1. 서론과 결론은 쓰지 말고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할 것.
2. 자신의 선택을 첫 문장에서 밝힌 후, 그 선택을 정당화하는 논거 두 가지를 (가)-(마)에서 찾아 제시하되, 제시문 두 개 이상을 활용할 것.
3. 자신의 선택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을 쓰고 이를 재박할 것.
4.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말 것.

## < 제시문 >

(가) 일반적으로 ‘사회’라는 단어와 ‘역사’라는 단어를 대립항으로 설정할 수 없지만 언어의 본질 문제에서는 이러한 설정이 가능하다. ‘언어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의 약속이다.’와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반된 명제이기 때문이다. 언어에 대한 사회적 약속이 깨지면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렵다. 그래서 언어는 달라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늘 변해가는 것이 언어의 속성이다. 그 때문에 언어의 변화를 억눌러서는 안 되고, 억누른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은 언어의 다른 속성과도 관계가 있다.

언어는 내용과 형식의 결합체인데 이러한 내용과 형식의 관계가 필연적인가 혹은 자의적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그리스 시대에서부터 논쟁이 있었다. 한편에서는 의성어, 음성 상징어를 예로 들어 언어가 자연의 법칙에 따라 형성된 것이고 그 결과 개념과 말소리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의성어와 같은 표현을 제외한다면 언어의 내용과 형식은 자의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았다. 오늘날에는 대체로 후자가 일반론으로 정착되었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언어는 관습이다. 어떤 이름도 필연적이지 않다.”고 함으로써 후자의 관점을 강조하였으나 실제 이 말 속에서는 언어의 변화에 대한 두 가지 태도를 읽어낼 수 있다. 어떠한 단어가 필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개념과 말소리 사이의 결합을 바꾸거나 새롭게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가 구속력이 있는 관습이라면 이미 정착된 것이 바뀌는 것은 좀처럼 허용되지 않는다.

인간의 언어능력은 선천적인 것이다. 이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자신이 경험하는 언어 환경 속에서 점차 완벽하게 말을 배워나간다. 인간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신의 귀를 통해 들어오는 말들을 규칙화하며 나름대로의 문법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 속도가 놀랍도록 빠르고 문법의 체계가 규칙적이다. 이러한 문법이 형성되고 나면 이 문법에 따라 말을 하려 노력하고, 문법에 맞지 않는 말을 들으면 거부해 한다. 이처럼 체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문법은 단어와 문장, 그리고 의미에 관한 모든 것을 지배하기 때문에 쉽사리 바뀌지 않고, 바꾸려는 시도도 쉽게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언어에 존재하는 규칙적인 성격은 무한한 창조의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한다. 기본적인 문장의 구성 원칙을 안다면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문장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나아가 어법에 살짝 벗어난 문학적인 표현을 구사할 수 있고,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보고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 단어를 만드는 일반적인 법칙을 안다면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단어를 이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있던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더하여 쓸 수도 있다. 그 결과 사전은 점점 두꺼워지고, 뜻과 용법에 대한 풀이는 점차 상세해진다. 이것은 인간의 언어가 풍부해지는 과정이지만 결국 그것도 변화의 일종이다.

길항작용은 생명체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언어는 언중 사이에 형성된 약속이라는 속성과 언어는 변한다는 속성 사이에도 길항작용은 나타난다. 언어의 본질에 내재해 있는 대립적인 이 속성은 결국 서로를 제어하면서 균형을 잡아간다. 기존의 약속이 날로 발전하는 문물과 사상을 수용하지 못하면 깨질 수밖에 없다. 끊임없이 변하려는 시도가 과하여 언중 간의 소통이 어려워지면 이에 대한 제한이 가해진다. 언어의 주인인 언중에 의해 창의적인 시도가 이루어지고 관습에 따른 검증과 용인이 이루어지면 언어는 규칙적이면서도 창조적인 상태를 유지해나갈 수 있다.

고등학교 <국어>에서 발췌, 수정.

(나)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언어이다. 인간은 언어를 가졌기에 고도의 사고 능력과 구조화된 사회, 빛나는 문화를 갖출 수 있었다. 태어난 아이는 자라서 어른이 되기까지 언어를 익히면서 사고하는 힘도 기른다. 인류는 언어로 정교하고 원활하게 의사소통함으로써 고도의 체계와 조직을 갖춘 사회를 이루었다. 더 나아가 언어를 가졌기에 수 천 년 동안 찬란한 문화를 쌓아 올리고 대대로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언어는 사람이 세계를 지각하고 사고를 전개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파랑과 초록 계열의 색을 구별하지 않는 언어를 쓰는 사람은 실제로도 이 두 색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 반면에 사방, 팔방을 넘어 십육방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는 바닷가 어부는 일반인들과는 달리 방향을 세세하게 구별한다. 이렇듯 자신이 배우는 언어로 세계를 이해하고, 그 언어로 세계에 대한 생각을 펼쳐 나가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 사람됨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다. 부정적인 표현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성장한 사람은 그러한 단어의 용법을 우선적으로 배우고 그러한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결과 성인이 된 후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은 싸움이 잦은 부부 사이의 언어생활을 관찰한 결과 그들이 서로에게 부정적인 언어를 자주 사용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비난, 원망, 경멸, 무관심 등을 표현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이로 인해 관계가 나빠지고, 관계가 나빠지면 이러한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또 전문가들은 부부가 악순환에서 빠져나오려면 먼저 언어생활을 고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라고 권고한다.

방송을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 사용되는 언어도 사람됨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방송에서 자주 사용되는 ‘숫다리, 폭탄, 얼큰이’ 등 외모에 대한 편견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실제로 그러한 편견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쪽쪽빵빵, 얼짱, 몸짱, 꽃미남, 킹카, 킨카’ 등의 신조어들 역시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에 자주 등장하는데 이런 언어의 사용은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하는 역할을 한다.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에서 발췌, 수정.

(다) ‘힙합’과 ‘도우미’란 단어 사이에 공통점이 있을까? 얼핏 보아도 전혀 다른 분야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공통점을 찾기 어려울 듯하다. 그러나 기존의 것에 대한 저항과 새로운 창조의 면에서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힙합이 ‘당신의 일상을 당신의 언어로 이야기하라’를 추구했다면 ‘도우미’란 단어는 ‘당신에게 필요한 말을 당신의 어법으로 만들라’를 지향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힙합은 음악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멜로디의 힘을 빌리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음악에 대한 테러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음악 이론과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힙합은 어느 누구라도 자신의 운율에 맞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꿈을 실현시켜 준다. 노래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힙합을 통해 자기 자신의 처지나 심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된다.

1993년 대전 엑스포에서 처음 쓰이기 시작한 도우미란 단어도 그렇다. 행사의 진행을 돕는 이를 지칭하기 위한 새로운 말이 필요했다. 그렇다고 영어의 ‘헬퍼(helper)’를 그대로 가져다 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 상황에서 누군가의 제안에 의해 시도된 이 단어는 기존 어법에 대한 도전이었다. ‘돕는 이, 도울 이’에 기원을 둔 ‘돕는이, 도울이’ 등은 어법에 맞는다. 그러나 ‘도움’과 ‘이’가 합쳐진 ‘도움이’는 어법에 맞지 않는다. 백번 양보한다면 ‘도움을 주는 이’를 줄여 ‘도움이’라고 하는 것도 봐줄 만했다. 그러나 맞춤법까지 어겨가면서 받침을 이어 써서 ‘도우미’라고 하는 것은 기존 어법에 대한 도전을 넘어 언어 파괴로 비칠 수도 있었다.

다시 힙합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미국의 뒷골목 흑인들의 저급문화로 취급되던 힙합은 어느새 미국

대중문화의 주류로 떠오르게 되었다. 흑인들뿐만 아니라 인종을 가리지 않고 이 장르에 담긴 저항의 정신, 창조적 정신을 마음껏 발휘하며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초반 이른바 X-세대의 문화혁명을 이끈 서태지와 아이들이 우리말로 된 본격적인 랩, 강한 힙합 비트, 그리고 헤비메탈적인 반복 구절로 한국 전역을 완전히 사로잡은 바 있다. 이제 힙합은 각 지역의 청년문화와 결합하면서 복잡하고도 다양한 방식으로 분화, 발전해 나가고 있다.

도우미란 단어도 힙합처럼 분화와 발전의 과정을 밟게 된다. 엑스포가 끝나면 사라질 것으로 생각했던 그 말이 그 뒤에서 계속 남았을 뿐만 아니라 세력도 더 넓혀졌다. 도우미란 한 단어에서 출발했는데 어느새 ‘지키미, 알리미’ 등의 새로운 말이 연이어 생겨났다. 마치 ‘미’가 접미사처럼 보이기도 했다. 게다가 ‘미’는 아름답다는 뜻의 한자 ‘美’를 연상시키니 더 좋아보였다. 그리고 ‘도우미’는 ‘가사 도우미, 청소 도우미’ 등에 사용되면서 더 좋은 뜻을 얻었다. 이전에는 ‘가정부, 청소부’ 등으로 쓰던 말을 이렇게 바꾸니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낮춰 보는 의미도 약해지고, 이 일을 하는 사람들 또한 남을 돕는 사람들이 되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누군가에 의해 시작된 시도가 어느새 새로운 조어법을 만든 데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다.

**(라)** 언어는 사회적인 약속이다. 그러나 나이, 신분, 직업 등 다양한 환경에 처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언어 사용이 모두 같을 수는 없다. 동일한 내용을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언어의 변이 현상이라고 한다. 특정 지역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투리가 이러한 언어 변이의 하나이다. 사투리가 주로 지리적 경계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라면 일부 언어 변이는 사회적 경계에 의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를 사회방언이라고 한다.

사회방언은 언어 사용자의 연령, 성별, 신분, 계층, 직업 등에 따른 언어의 차이이다. 예를 들어 의료인들 사이에서는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수많은 의학 용어가 일상어처럼 사용된다. 교통사고 후유증을 앓는 환자의 병원 진단서에 ‘고관절 외전근 열상과 미추부 봉와직염, 심계 항진과 연하곤란 등 불안 장애 동반’이라고 적혀 있다면 이는 엉덩이 관절을 벌리는 근육에 찢긴 상처가 있고 꼬리뼈 주변 연한 조직에 염증이 있으며, 불안 증세로 가슴 두근거림이 있고 음식을 삼키는 데에도 장애가 있다는 뜻이다. 진단서에 사용된 이런 용어들은 비록 일상적인 언어는 아니지만 시간을 절약하는 긍정적 역할을 하기도 하며, 이를 사용하는 집단의 권위를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각 직업 집단에서 사용되는 특수한 용어들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등 학생 집단에서 자기들끼리만 사용하고 알아듣는 은어도 있다. 은어는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구성원들끼리만 빈번하게 사용하는 말이다. 특정 직업, 취미 혹은 특정 연령대에서만 사용되는 은어는 표준 언어는 아니지만 정체감이나 결속력을 창출하여 내부인과 외부인을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언어의 주요한 기능이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타인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이다. 즉, 서로 동질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유대감을 표현하기도 하고 다른 집단과는 구별되는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신과 자기가 속한 집단을 타 집단과 분리시키기도 한다. 사투리를 통하여 지역민들은 서로 동질감과 연대감을 갖게 되고, 그 문화적 동질 의식이 곧 그 지역의 정체성으로 자리하게 되는 것이다. 한 때 주변부 언어로 여겨져 사용이 제한되었던 지역 방언들이 요즘 방송에서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고, 영화에서도 사실감을 위해 특정 지역의 방언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에서 발췌, 수정.

(마) 바다를 막는 방조제에는 물이 들고 나는 것을 제어하는 수문이 있다. 수문은 필요한 물은 받아들이고 필요 없는 물은 흘러보내기 위해 설치한다. 언어 정책에도 이와 같은 수문이 필요하다. 특히 새로운 표현이 등장했을 때 우리말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우리말에 해가 되는 것은 막을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이나 ‘전국 경제인 연합회’를 ‘한국’이나 ‘전경련’으로 많이 쓰는데, 이런 식의 한자어 줄임말은 원래의 뜻을 드러내면서도 길이가 짧아 효율적이다. 이러한 용법에 기대어 ‘엄마 친구 아들’을 ‘엄친아’라고 줄여 쓰기도 한다. 원 표현이 한자어는 아니지만 모두 명사로 되어 있어 줄임말이 원 표현의 뜻을 어느 정도 가늠하게 한다. 또 원 표현이 흥미로운 사회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 줄임말이 기억에 잘 남아 꽤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가면 문제가 된다.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옴), 답정너(답은 정해졌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솔까말(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등에 이르러서는 원 표현의 뜻을 알아차리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줄임말의 대부분이 우리말의 일반적인 말소리 구성을 벗어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대개 거칠거나 부정적인 표현이라는 점이 문제이다.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놈)’, ‘여병추(여기 병신 하나 추가요), 화떡녀(화장 떡칠한 여자)’ 등은 장난으로라도 써서는 안 되는 말들이다.

오늘날 새로 생겨나는 전문용어들이 대개 외국어이거나 외래어라는 문제도 생각해 볼 만하다.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가령, ‘카르텔’은 영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인데, 이것을 ‘기업연합’이라고 바꾸면 ‘독점력을 행사하기 위해 암묵적으로 제품 가격과 그 질을 통제하는 기업군’이라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대로 쓰는 것이 좋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한없이 관대해질 수만은 없다. 해당 전문가 집단 내의 의사소통에서는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한 발 양보하더라도 그 집단이 집단 밖과 소통할 때에는 의미 전달에 있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클래식하고 베이직한 아이템들을 통해 시크한 멋과 스타일링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 주고 있다. 재킷은 절제된 실루엣을 강조하였으며, 소재로는 카멜 헤어, 헤링본 또는 벨벳과 같은 트레이셔널한 패브릭이 사용되었다.”라는 기사나 “하이테크 슈퍼 비전 클러스터 - 신감각의 3실린더 타입 클러스터와 레드&화이트 조명의 입체적인 그래픽은 주야간 언제나 선명하게 잘 보이며, 장애물 위치 표시 등의 다양한 정보 표시 기능은 드라이빙의 편의성을 한 단계 높여 드립니다.”라는 제품 광고 문구를 보면, 도대체 정확하게 알고나 사용하는 말인지,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해야 하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소통을 위해 쓴 글인지 혼란스럽다.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에서 발췌, 수정

■ 문항 2 [30점]

[논제] <다음>에 제시된 갑, 을, 병, 정 의 주장은 모두 옳다. <표 1>, <표 2>, <표 3>을 활용하여 각 주장을 뒷받침하라. (600±100자, 30점)

— < 다 음 > —

우리나라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의 퇴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들이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주택 또는 토지를 처분할 경우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 관련 자료들을 통해 아래와 같은 주장이 제기되었다.

갑 : 가구당 자산은 베이비붐세대가 전체가구보다 많다.

을 : 베이비붐세대의 가구당 평균소득은 전체가구보다 적다.

병 : 주택과 토지를 동시에 보유한 가구 비중은 베이비붐세대가 전체가구보다 높다.

정 : 베이비붐세대의 토지 보유 가구 비중은 전체가구보다 높으며, 토지 보유 가구의 평균 토지 가격도 베이비붐세대가 전체가구보다 높다.

<표 1> 소득구간별 가구 분포

(단위: 만 가구, %)

구분	전체가구		베이비붐세대가구	
	가구 수	비중	가구 수	비중
8천만원 이상	178.5	10.2	17.1	7.3
7천만원 대	75.2	4.3	8.2	3.5
6천만원 대	105.0	6.0	9.6	4.1
5천만원 대	136.5	7.8	14.5	6.2
4천만원 대	183.7	10.5	19.4	8.3
3천만원 대	250.2	14.3	31.1	13.3
2천만원 대	264.2	15.1	37.9	16.2
2천만원 미만	556.5	31.8	96.1	41.1
총 계	1,750.0	100.0	234.0	100.0

<표 2> 가구별 자산 분포 현황

(단위: 조 원)

구분	전체가구	베이비붐세대가구
총 자산	5,209	922
금융자산	1,208	147
실물자산	4,001	775
부동산자산	3,834	754
주택	2,085	398
토지	1,749	357
기타 실물자산	167	21

<표 3> 가구별 부동산 소유 현황

(단위: %)

구분	전체가구	베이비붐세대가구
부동산 소유자	주택 소유자	74.2
	토지 소유자	42.7
부동산 미소유자	34.3	18.7

\* 전체가구는 베이비붐세대가구도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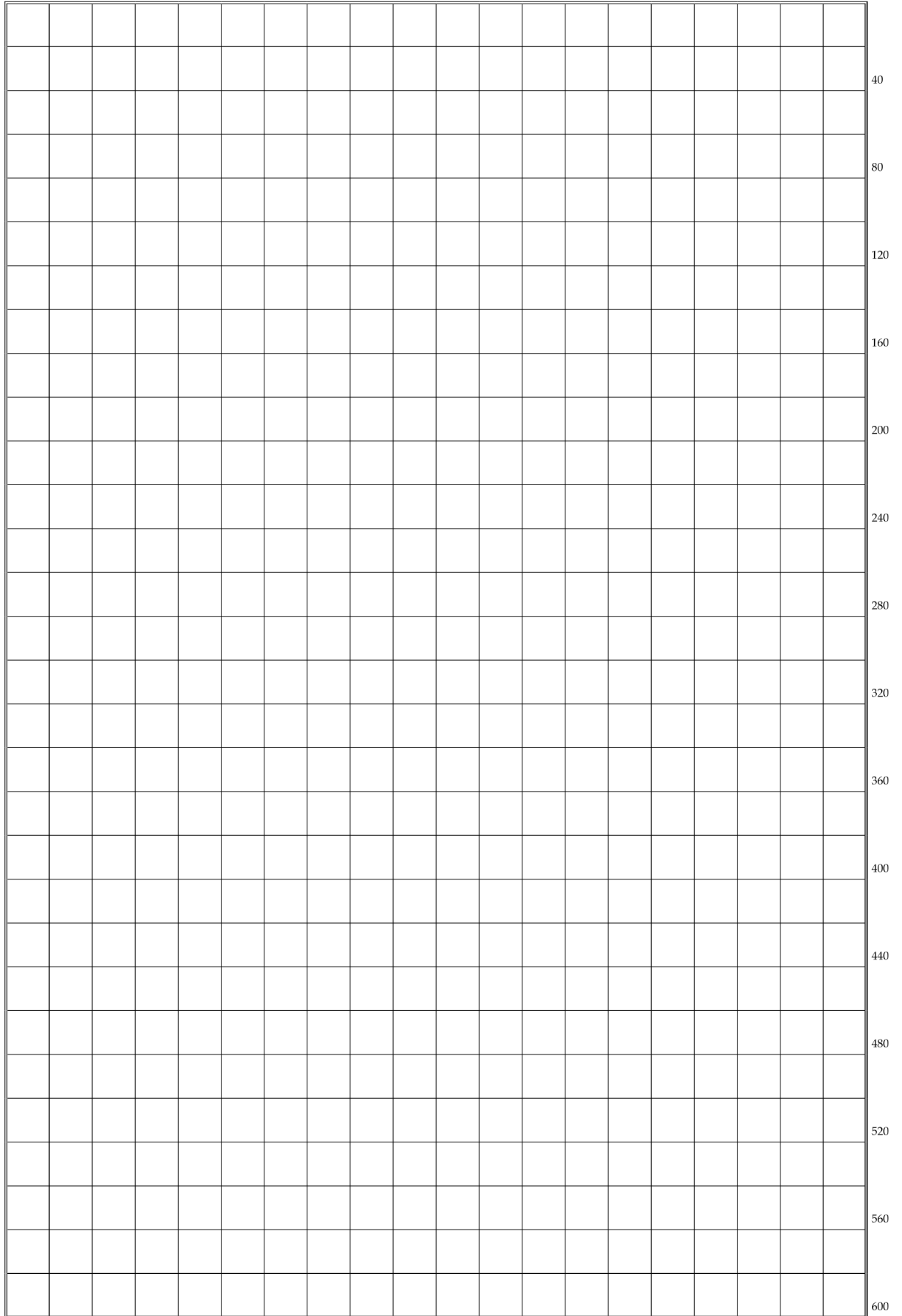
\*\* 반올림으로 인하여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통계청과 한국금융연구원의 2011년 가구별 자료를 바탕으로 일부 수정함.











# 논술고사 연습장 (인문계열)

---



---



---



---



---



---



---



---



---



---



---



---



---



---



---



---



---



---



---



---



---



---



---



---



---



---



---



---